

장성 '지역 인재양성 기탁' 활발

(재)수당재단·(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온정 손길

장성군 학생들을 위한 온정 어린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재단법인 수당재단이 장학생 3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재)수당재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 선생 13대손이자 삼양그룹 창업주인 고(故) 수당 김연수 회장이 설립했다. 후학 양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장성지역 학생 330명에게 총 2억 8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학교별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필암서원 김삼백 도유사는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해 장성의 대를보가 되어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저소득 가정 자녀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 장학생 17명을 선정해 2024년까지 2년간 장학금 2280만 원과 컴퓨터 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 장성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회공익법인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장학금, 컴퓨터, 생필품 등 저소득가정 학생 후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재)수당재단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의 기탁이 장성을 이끌어 갈 꿈나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군도 아낌없는 교육 지원으로 지역의 미래를 희망의 빛으로 채워 가겠다"고 밝혔다. /장성=심재식 기자

'폭염 예보' 함평, 축사지붕 열차단재 지원

축산농가 피해예방 총력... 스트레스 완화 면역증강제도 공급

함평군이 올해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자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6월 안에 지역 축산농가 30곳을 대상으로 축사 지붕 열차단재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열 차단재를 지붕에 도포해 축사 내 열기 축적을 방지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열 차단재를 도포한 축사는 내부 온도가 2~3도 가량 내려가 폭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온에 취약한 축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면역증강제도 공급할 계획이다.

김환동 함평군 축산과장은 "올해 여름 수시로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하고 축사 피해 예방 요령을 알리는 등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화순 인문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 공모

지역 제한 없는 평생 교육... 오는 14일까지 방문 접수

화순군은 지리적으로 학습 참여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문행복학습센터 운영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인문행복학습센터란 아파트 주민 자치회, 마을 복지회관, 경로당 등 마을 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설치하는 마을 학습장이다. 주민들은 인문행복센터에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인문행복학습센터 지원자격은 최소 10인 이상의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이며, 화순군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공

간운영자(대표)가 지원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마을이나 단체의 대표가 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화순군청 총무과로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 누리집(www.hwusun.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팀(061-379-3352)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우리 지역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모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화순=주유현 기자

나주, 12개 읍·면 마을버스 도입... 대중교통 노선 개편

운송사업자 20일까지 모집... '간선-시내-마을버스·택시' 체계 구축

빛가람동 '수요응답형 나주콜버스'·나주역 등 주요 거점 '급행버스' 신설

나주시가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 마을로 순환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9월부터 신설·운영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간선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로 이어지는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체계 개편을 위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버스는 남평읍과 동강·공산·다도·금천·세지·봉황·다시·문평·노안면 등 12개 읍·면 소재지와 자연마을을 연결하는 대중

교통 수단이다.

기존 중형버스를 15인승 소형버스로 교체해 운영비와 승객 대기시간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주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국의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오는 20일까지 1차 공모하고 참가자가 없을 경우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서 접수 이후 사전 정량평가로 운송사업 적격 여부를 판별한

뒤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운송사업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 등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마을버스와 더불어 빛가람동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나주콜버스)과 면 지역에서 시범운영 예정인 마을 택시 운송사업자도 7월 중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대중교통 노선 개편안 중 간선버스(999번, 160번)는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혁신도시 주요 거주지를 경유해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와 연결하는 시내버스는 나주, 영산포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기존보다 운행 횟수를 늘려 승객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나주, 영산포, 혁신도시, KTX나주역 등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급행버스 노선도 신설해 9월 중 운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마을버스 도입에 따라 적은 운행 횟수,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겪었던 읍·면 지역 마을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민선 8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보조금은 절감하고 교통 편의는 크게 향상되는 대중교통 대전환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영광,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0억 확보'

내년부터 5년간 정책과제 이행 등 연차적 추진

영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33억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농림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정책수립 방향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영광군은 '음식·관광·에너지로

일어나는 스마트 영광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영광군 생활권 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농촌유류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앞으로 영광군은 농식품부와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식

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협약 계획에 담긴 정책과제 이행과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농촌협약 선정은 군이 거둔 농촌개발분야 역대 최대 성과로, 우리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 농촌협약 공모를 철저히 준비한 만큼 농촌협약을 순조롭게 이행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어디서나 살고 싶은 영광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흥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JOB것들' 플로깅 활동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 동아리연합회의 진로탐색 동아리 'JOB것들'에서 바다의 날과 환경의 날을 기념해 최근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플로깅이란 스웨덴어의 '플로가 얀(plocka upp: 줌다)'과 '조가(jogga: 조깅하다)'를 합성하여 만든 '플로가(plogga)'라는 용어의 명사형으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기'라는 의미이다.

플로깅 활동에는 진로탐색 동아리 'JOB것들' 소속 학생 20명이 참여해 장흥읍 일대 및 탐진강변의 쓰레기를 청소했다.

참여자들은 '더웠지만 쓰레기를 모은 후 가득 찬 쓰레기 봉지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환경과 폐기물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한 것 같아 마음이 좋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하고 싶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관계자는 "이후로도 물축제 공연, 청소년 축제 등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문화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장흥군 문화와 환경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 전남 220인 나눔리더 담양 1호 가입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역 나눔문화 확산과 개인 모금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 사랑의 열매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담양 나눔리더 1호로 등록했다.

7일 열린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 가입식에는 이 군수에 이어 최용만 군의회 의장이 2호로 이름을 올렸고, 전남 아너소사이터 허영호 대표도 가입을 마쳤다.

함께 진행된 공동모금회 배분금 전달식에서는 차량 지원에 지체 장애인 협회, 빛고을공동체가 확정됐고, 예수마을의집 등 4개 사회복지시설에는 사업 지원, 담양군복지재단에는 나눔문화 확산 지원 사업 배분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소중한 기부는 어려운 이들에게 세상을 더 밝고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는 일"이라며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돼 지역 사회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 원의 기부금을 약속하고 기부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기부금은 전남 도내 취약계층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복지공동체 사업'에 사용된다. /담양=조성재 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